

2026년 2월 19일

Macro Snapshot



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| Economist 김유미 helloym@kiwoom.com

키움증권

M2 안정 속 금융화와 K-자형

2025년 12월 한국 M2 증가율(평잔 기준)은 전년 동월 대비 4.7%를 기록하며 전월(4.8%)보다 소폭 둔화되었다. 통계 개편 이후 M2 증가율은 4~5% 범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, 구 M2 증가율이 8% 내외에서 움직이던 흐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다. 이는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시켜 줄 수 있다.

다만 경제주체별 및 금융상품별로 살펴보면 내부적으로는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난다. 경제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가계와 기업의 M2 증가율은 둔화되는 반면, 증권사와 보험사 등을 포함한 기타금융기관의 M2 증가율은 1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2.3%까지 확대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 이는 가계와 기업의 M2 둔화가 실물경제 측면의 유동성 모멘텀 약화를 의미하는 반면, 기타금융기관 M2 확대는 금융시장 내 대기성 자금 증가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. 다시 말해, 유동성이 실물보다 금융시장에 머무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이러한 흐름은 내수 경기의 회복 탄력은 제한적인 반면, 자산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. 금융상품별로 보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분명하다. 만기 2년 미만 정기예금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0.5% 증가에 그친 반면, 시장형 상품(CMA·발행어음·만기 2년 미만 외화예수금)의 증가율은 13.8%까지 확대되었다. 이는 자금이 실물경제 관련 예금보다 금융시장 관련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.

이처럼 유동성의 금융화가 진행되는 흐름은 한국 경제의 K-자형 구조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. 금융자산 보유층은 상대적 우위를 공고히 하는 반면, 실물 기반 자산과 내수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.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책 효과가 자산시장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비대칭성이 확대되고, 정책 타이밍에 대한 리스크도 함께 커질 수 있다. 그 결과 통화정책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워지며, 통화정책의 역할 역시 과거에 비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.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의 정책 조합이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.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